‘일+휴식’ 순천 정원워케이션 인기

국가정원내 호텔+오피스 시설
오픈 4개월 만에 8000명 방문
전국 기관·기업에서 문의 쇄도

고품격 국가정원에서 쉬면서 일하는 순천의 ‘정원워케이션’이 인기몰이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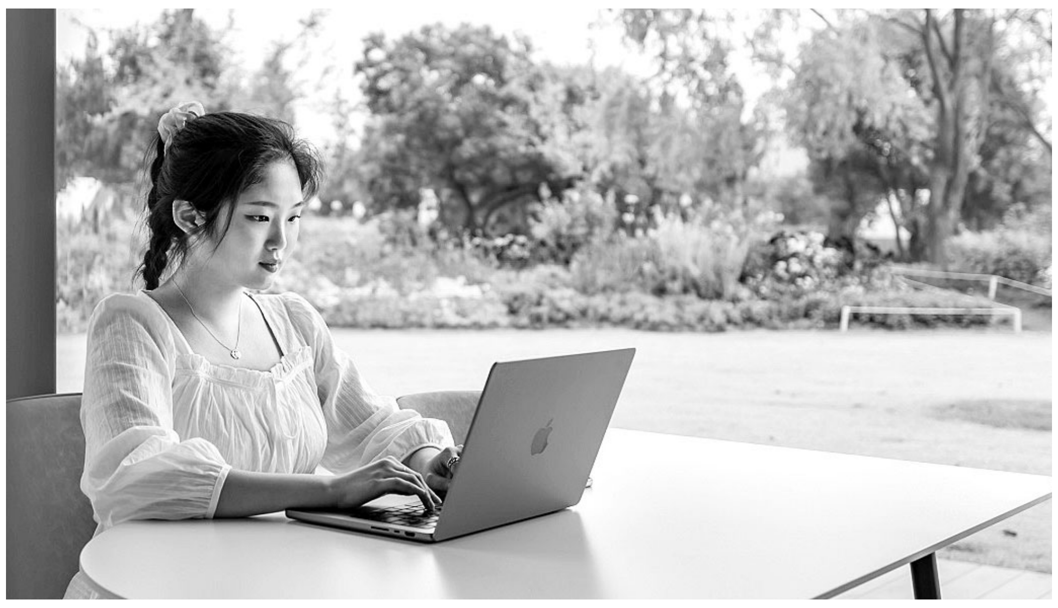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 정원워케이션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컨셉으로 예약 오픈 4개월 만인 8월 현재 8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전국 기관 및 기업에서 워케이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인 ‘고향올래(GO鄕ALL來)’ 공모에 선정되어, 정원을 품고 자연 속에서 쉬면서 일한다는 자연주의 정원워케이션 상품을 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여행객들에게 하룻밤의 낭만과 힐링을 선사한 ‘가든스테이 쉴랑게’ 공간을 전국 워케이셔너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정원워케이션 센터는 순천의 랜드마크인 국가정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안은 어느 위치에서나 가든뷰는 기본 옵션이다. 삼나무 향이 가득한 캐빈 내부는 호텔식 침구로 세팅되어 있으며 개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스탠드 등 오피스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야외시설답지 않은 반전 매력을 선사한다.

또 시시각각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와 정부의 정책 동향을 적극 반영하여 가든스테이를 업그레이드하고자 관광객이 더 오래 지역에 머물고, 더불어 기업 투자 유치와 홍보에 유리한 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 워케이션을 접목했다.



순천을 찾은 방문객이 정원워케이션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기존 가든스테이 경험자는 물론 정원워케이션 이용자의 입소문을 통해 인기가 날로 상승 중에 있으며, 기업은 물론 정부, 지역 워케이션을 운영 중인 지자체에서 순천형 워케이션을 주목하고 있다.

순천시는 개인에서 단체까지 다양한 규모의 워케이션 수요를 반영하고자 행정안전부에 관련 사업비를 건의하여, 지난 8월, 워케이션 허브 조성을 위한 특교세 6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비는 국가정원 내 정원워케이션 센터를 거점으로 단체 워케이션 수용 태세 마련을 위해 인근 한옥 펜션인 에코촌 공간 재구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노후된 객실은 정비해 워케이션 감성을 더하고, 기존 생태관은 유연성을 더해 팀빌딩, 워크숍 등 네트워킹 중심의 가변형 커뮤니티 룸으로 조성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가 생활인구 유입의 거점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면서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워케이션 허브 도시이자 지역 콘텐츠 중심의 K-워케이션 모델을 순천이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기상악화로 집 못가는 섬 주민에 숙박비

여수시, 삼산면·남면 주민 대상…거주지 면사무소서 신청

여수시가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결항으로 육지에 머무는 섬 주민의 숙박비를 1인당 1일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원거리 섬 주민의 복지 정책 일환으로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상 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육지 숙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숙박비 지원 시범사업의 대상은 삼산면, 남면(연도) 주민들이며,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하루에 최대 4만 원까지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8만 원이다.

청구 방법은 숙박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숙박비 영수증, 여객선 승선권 등을 거주지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청구 서류 위조 등 부당 청구 적발 땐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열띤 토론

국제화추진협의회 개최

광양시는 지난 23일 ‘2024년 하반기 광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열고 글로벌 광양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고 밝혔다.

광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당연직 2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 민·관·산·학 협의체다.

이날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상반기 국제화추진협의회 제안사항 이행 결과 보고와 2024년 성과 및 2025년 추진계획(안) 설명이 있었으며, 이후 위원들의 의견 수렴 시간도 가졌다. 특히 내년도 광양시 국제화 전략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국제교류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던 만큼 위원들은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비전 실현을 위한 통찰력 있는 고견들을 제시했다.

이날 상반기 이행 결과 보고에서는 ▲시민 K-Pop 댄스공연팀 오스트리아 공연 ▲캐나다 랭리 타운쉽 前 시의원 광양 방문 ▲필리핀 K2H 공무원 광양 초청 연수 등 문화예술교류와 인적교류 등이 소개됐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강레오 셰프, 곡성 청년 푸드 창업 컨설팅

수플레·티라미수 등 메뉴 개발

곡성군이 최근 예비 청년 푸드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푸드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곡성군은 예비 창업자 지원을 통한 푸드 창업가 발굴과 역량 강화로 지역 청년인구 유입과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년 푸드 창업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예비 청년 푸드 창업자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행사는 곡성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강레오 셰프가 강사로 참여했다. 창업 예정인 청년과 신규 창업자, 전남과학대학생, 조리과학고학생 등 총 8명이 참여했고, 강레오 셰프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 교육을 진행, 창업자의 영업 업소에 방문해 수요자 맞춤 강의를 진행했다.

예비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의 요구에 맞춘 메뉴 컨설팅과 서비스 개선, 고객 관리, 음식점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했다. 컨설팅을 통해 수플레, 홍시 판타코타, 홍시 티라미수, 딸기라떼 등의 메뉴가 새로 탄생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

고흥 미디어아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9월12일~10월6일 분청문화박물관
관광객 20명 이상 1명당 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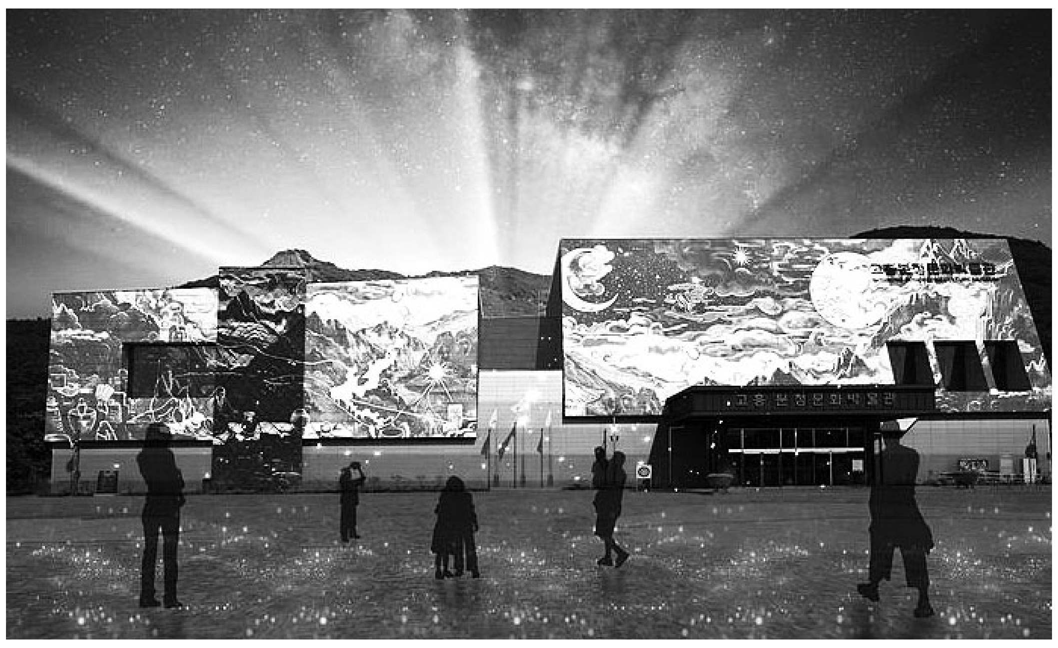
고흥군이 오는 9월12일부터 10월6일까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개최하는 ‘2024 고흥 분청사기 미디어아트’ 행사에 참여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조건은 고흥군 내 유료 관광지 한곳 및 음식업소 2곳 이상 방문,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야간 미디어아트 행사 참여 등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외 관광객 2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 관광객 1명당 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관광목적이 아니거나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초청에 의한 행사 참여,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명단에 포함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분청사기 미디어아트는 고흥 분청사기를 주제로 최첨단 미디어아트 전시와 야간 행사로, 다양한 전시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2024 고흥 분청사기 미디어아트’ 행사 중 분청사기박물관 벽을 활용한 야간 미디어 아트 행사 예시. 〈고흥군 제공〉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군의 독특한 문화와 미디어아트의 조화를 통해 관광 활성화 및 고흥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새얼굴

“광양 시민 안전 위한 치안 활동 강화”

송기주 광양경찰서장

“광양시민에게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공감 치안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지난 26일자로 제 84대 광양경찰서장에 취임한 송기주〈사진〉 총경은 이같이 취임 포부를 밝혔다.

송 서장은 광양 영세공원 내 무명 경찰관 묘역에서 충혼비 참배를 시작으로 광양경찰 협력단체장과 집무실에서 취임 간담회를 가지며 업무를 시작했다.

송 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야한다”며 “일하는 순간이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민에게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공감 치안활동을 하고, 협력단체와의 소통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치안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 출신인 송기주 서장은 전남청 형사과장, 전남청 화순경찰서장, 광주청 안보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